

꿈바당편지

부당하게 잊히는 책은 있어도 과분하게 기억되는 책은 없다. - 오든

Some books are undeservedly forgotten; none are undeservedly remembered. (W. H. Auden)

처음 '꿈바당'이란 이름을 만났을 때를 떠올려봅니다. 표준어로 옮겨보자면 '꿈바다'가 되겠네요. 그런데 어쩐지 '꿈바다'보다 '꿈바당'이 더 넓고 푸르게 느껴집니다. 분명 발음할 때의 어감이 주는 현상이겠지요. 단지 받침 'ㅇ'이 더 들어갔을 뿐인데도 '꿈바당'을 입술로 옮겨볼 때의 느낌은 제주의 넓은 파란바다가 와락 다가오는 싱그럽고 시원한 맛 외에도 달짝지근한 정의 맛까지 추가가 됩니다. 이를테면 제주 대표적인 음료인 '쥬다리' 맛이랄까요? 7월의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은 '꿈바당'이란 이름과 가장 잘 어울리는 한 달인 것 같습니다. 도서관 전체가 바다이미지로, 바다 책으로, 바다 프로그램으로, 바다 꿈으로 얹거나 깊은 파도에 고래가 넘실넘실 넘나들고 있습니다. 고래를 좋아하는 도서관 직원들도, 고래처럼 커다란 꿈을 꾸고 있는 아이들도 도서관 전체를 헤엄쳐 다니는 고래들을 쫓아다니다 보면 어느새 더위는 저만치 물러나고 말지요.

햇살 가득한 아침
황금빛 찬란한 세상에서
참 좋다.

비가 내리면
차분한 마음 만들어 줘서
참 좋다.

바람이 불면
생기 있는 세상 볼 수 있어서
참 좋다.

이 세상에 내가 있어서
참 좋다.

내가 나여서
참 좋다.

———— 이명혜「참 좋다」전문 ————



햇살 가득한 날도, 비가 내리는 날도, 바람이 부는 날도, 심지어 폭설이 내린 날도 어김없이 도서관을 찾아주시는 이용자들에게는 7월의 무더위 역시 문제가 될 수는 없겠죠.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점점 익숙한 얼굴의 이용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도서관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설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살짝 살짝 민망한 장면도 함께 목격되고 있네요. 날씨가 덥다 보니까 옷차림이 너무 간편해진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종종 '모듬활동실'에서 가정집 안방처럼 그 간편해진 옷차림으로 아이들을 동반한 엄마, 아빠들이 누워서 피서를 즐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만들고 함께 지켜가는 공간인 만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만큼, 서로를 배려하며 정해진 규칙을 지켜나가면서 꿈바당에서도 건강한 여름 나시길 빌어봅니다.

7월, 꿈바당은 고래들이 더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많은 도서관을 보고 왔습니다. 이명혜시인의 동시「참 좋다」에서 그 참 좋은 목록에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이 추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잊히지 않고 오래오래 기억될 수 있는 책이 많이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고래들의 헤엄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도록 오늘도 꿈바당은 생각의 근육을 불끈불끈 키워나가겠습니다.

-7월 고래들이 헤엄치는 꿈바당에서-

꿈바당책장

서평 <작가가 들려주는 동화이야기>

또 다른 세상 바다, 그곳엔 고래나라가 있었다.

-그림책 '고래나라'의 프로로그와 에필로그-



서명: 고래나라 / 장수명 글 / 김품창 그림 / 출판사: 마추보기 / 청구기호: [제주 813.6-장56ㄱ]

저는 제주에서 태어나지도 제주에서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남편을 따라 제주로 내려온 것뿐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이곳에서 글을 쓰는 등 적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답니다.

제가 제주도 이야기를 동화로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계기는 하원동에 있는 탐라국 왕의 무덤을 다녀오고 나서부터였지요. 그 분의 묘소를 참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왕이라는 단어조차 쓸 수 없어 '왕자' 혹은 '성주'로 격하된 탐라국 왕의 무덤은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 여러 방송사에 이야기도하고 조금씩 정비를 하기 시작했지요. 게다가 작년 2017년 원희룡 도지사께서 특별비를 마련해서 돌담도 쌓고, 정낭도 세우는 등 정비를 했지만, 여전히 왕의 무덤이라고 보기에는 초라한 곳이지요.

저는 그 때부터, 제주도 이야기를 책으로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 생활풍습 등의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제 책 '고래나라'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저처럼 바다에서 수십 마리씩 떼를 지어 다니면서 바다 한 가운데에서 하얀 배를 드러내며 뛰어오르는 야생 돌고래 쇼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요? 제주도에 내려와서 2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디. 집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은 순간이었지요.

"어, 저게 뭐지?"

갑자기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가리키는 바다 한 곳을 바라보니, 시커먼 검은 물체가 바다에서 솟구쳐 올랐다 내려가고, 솟구쳐 올랐다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지요. 처음에 우리는 해녀 분들인가? 싶었는데, 그 모습이 이제껏 보던 해녀 분들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지요.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래라고 소리를 질렀지요. 우리는 바다로 달려 나갔습니다. 제주 오면서 구입했던 성능 좋은 망원경을 들고 말이예요. 집 앞 바다에서 야생 돌고래 쇼가 제 눈앞 바로 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지요. 한 마리가 뛰어 오르자, 연이어 수십 마리의 돌고래들이 바다에서 하얀 배를 드러내고 뛰어 오르내리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그 경이로운 순간을 어떻게 말로 글로 다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 이후 저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있다면 바다 저 깊은 곳엔 고래들이 사는 나라가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고래이야기를 쓰기위해서 자료를 조사하다가 저는, 제주도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우리나라 장생포에서 고래축제를 매년 하고 있는데, 정작 고래가 서식하는 제주도에서는 책하나 나오지 않았고, 제대로 고래에 관한 이벤트 하나 없다는 것이 몹시 안타까웠지요.

그래서 저는 고래이야기를 장생포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고래나라' 이야기를 썼는데, 그 이야기가 책으로 나오기까지는 무려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답니다.

이 '고래나라' 그림책의 그림은 화가 김품창 선생님의 '어울림의 공간 - 제주환상'이라는 주제로 그린 그림들이랍니다. 부제는 '제주의 하늘엔 바다가 있다.'이지요. 화가 김품창 선생님의 바다 속 고래이야기는 정말 대단하답니다. 그 그림과 함께 '고래나라'로 여행을 시작해 보자고요!

'고래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은 한라산이지요. 그 아래 보이지 않는 바다 속에 잠긴 한라산의 크기는 얼마만 할까를 상상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바다 속 한라산, 그곳을 중심으로 고래들이 사는 나라가 있다는 상상을 하며 이 책을 썼답니다.

바다 깊은 곳에 또 하나의 한라산은 고래들에게 매일 이야기합니다.

서귀포 바닷가에 오래된 빨강지붕집이 있고, 그 집에는 자연의 소리를, 자연의 몸짓을 담아낼 줄 아는 소년이 살고 있는데, 그 소년은 매일 고래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을 만나기 위해서 고래들은 바다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고래를 꼭 닮은 물비행기를 바다에 띄워, 빨강지붕 집 소년을 바다 속으로 데리고 오지요.

깊고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온 소년에게 고래들은 지느러미 속에 감춰두었던 손을 내민답니다. 고래의 손을 맞잡은 소년은 고래의 말을 고래의 노래를 들을 수 있게 되었지요. 빨강지붕 소년과 고래는 서로 다르지 않았습니니다. 깊고 깊은 바다 속에는 고래를 꼭 닮은 소년도 살고 있었고, 고래를 꼭 닮은 소녀들도 살고 있었지요. 하지만 소년은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했지요. 물비행기를 타고 소년은 고래와 작별인사를 해야만 했지요. 고래들과 소년은 한마디도 서로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답니다. 바다의 소리를 산의 울림을 온 몸으로 받으며 소년은 다시 빨강지붕 집으로 돌아왔지요. 지금도 제주도 깊고 깊은 바다 속 고래들의 노래는 한라산 높고 높은 산허리를 휘감고 매일 밤 자연의 소리를 품을 줄 아는 이들에게 찾아간답니다.

어때요? 잘 들으셨나요? '고래나라'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에도 고래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려 귀를 쫓긋 세울 거랍니다. 그리고 바다 깊은 곳에서 올라오겠지요!



장수명

새벗문학상을 수상하였으며, 그림책 '똥돼지'는 한국문화관광부우수교양도서로 선정되었다.

'고래나라'는 서귀포시민의 책으로, 동화 '행복한 손수건'은 한국문예진흥원 우수동화로 선정되었다.

작품집으로는 '똥돼지' '고래나라' '노리의 여행' '세한도' '뽕백꽃' '내 이름은 아임소리'

'도깨비 대장이 된 훈장님' '대별이 소별이 이야기' 외 30여권의 책이 있다.



※ 작가 서평은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제 읽은 책 ① 곰씨의 의자

노인경 글·그림 / 문학동네
청구기호 [그림책방 813.7 노68 ㄱ]



의자에 앉은 곰씨는 햇살 눈부신 날 시집을 읽고 차를 마시고 음악을 들으면서 혼자만의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곰씨 앞을 세계를 여행하는 탐험가 토끼가 지나가고 곰씨는 친절할 말을 건넵니다.

“몹시 지쳐보이는군요. 누추하지만 제 의자에서 잠시 쉬었다 가시지요.”(본문 중에서)

관계는 언제나 이러한 호의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호기심으로 처음에는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침범하는 영역도 생기고 차이점으로 인해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곰씨는 불편한 속마음을 나오지 않는 말 대신 행동으로 마음을 드러내려 하고 이로 인해 오히려 오히려만 쌓여 갑니다. 결국 곰씨는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마음의 평화를 되찾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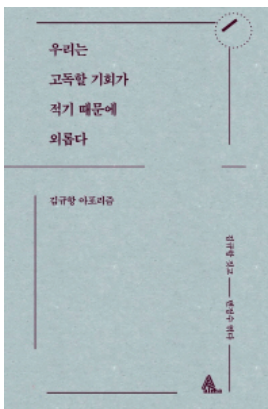
작가가 던져주는 메시지는 어찌 보면 간결합니다.

“누군가와 즐겁기 위해서는 솔직해질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의 추한 모습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제 읽은 책 ② 우리는 고독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외롭다

김규항 지음, 변정수 엮음 / 알마
청구기호 [꿈자람책방 818 김16 ㄹ]



“사람은 내적 음성과 대화하고 외적 음성과 이야기를 나눌 때 비로소 외롭지 않다.(중략) 고독과 외로움을 구분해야 한다. 고독은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고, 외로움은 다른 사람과 차단된 고독이다. 자신과 대화할 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제대로 대화할 수 있을까. 고독을 피한다면 늘 사람에게 둘러싸여도 외로움을 피할 수 없다. 용맹하게 고독해야 한다.”(6p.)

이 책을 집어든 독자의 대부분은 책제목이 주는 철학적 화두에 이끌렸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김규항이라서’ 라고 하면 너무 개인적인 취향을 드러난 것일까? 저자 김규항은 <B급짜파>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졌으며 현재는 어린이 교양지 『고래가 그랬어』 발행인을 맡고 있다.

이 책의 글은 김규항이 공개적인 글쓰기를 시작한 1998년부터 2016년까지 그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글을 토대로 출판평론가 변정수가 일 년 여의 기간 동안 꼼꼼히 정독하여, 함축미가 돋보이는 아포리즘으로 분류할 수 있는 문장을 세심하게 가려 뽑은 것이다.

이 책은 글을 통해서 세계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독자를 이끌고 있다. 문장은 간결하고 함축적이지만 그 무게감은 상당하다.

처음에는 철학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교육, 종교, 정치, 사회 등 다양한 주제를 넘나들면서 읽는 이로 하여금 당연하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좋은 글은 불편하며 좋은 음악은 가슴 아프다.”(127p.)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세계를 향해 그리고 나를 향해 질문을 던지고 싶다면 일독을 권하고 싶다. 다만 얇다고 쉽게 보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 열람실담당 조경림 사서 -

도서 전시 소식

7,8월에는 바다를 주제로 한 도서를 선정하여, 전시기간 동안 같은 주제의 다른 책들을 바꾸어 진행됩니다.

무더운 여름을 맞아 시원한 바다의 이야기를 담은 책 속으로 떠나는 바캉스를 컨셉으로 하며 생명의 근원인 바다 속 생물들과, 환경을 다룬 이야기에 더해 바다를 소재로 한 아름다운 그림책들을 선정하였습니다. 바다를 보며 자라는 제주의 어린이들이 무한하고 영원한 바다의 생명력을 느끼며 꿈을 키우고 앞으로 함께 가꾸고 함께 누려야 할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꿈바당 프로그램

7월의 프로그램

자연이 준 아름다운 선물 '바다'

7월의 주제는 '바다'입니다.

불가마 속 찜통 더위에 지칠 때 한달음에 달려가면 하얀 거품을 물고 나타나 반갑게 포옹하며 물세례를 주는 바다! 이 여름, 우리의 놀이터이자 휴식처가 되어주는 바다의 모습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너그러운 마음을 갖자고 전하는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은 잠시 접어두고 사랑하는 가족과 탁 트인 푸른 바다앞으로 달려가 보는 건 어떨까요?



글바당에 풍덩! 글짓는 아이들!

7,8월은 '바다'를 주제로 다양한 작품 감상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을 확장시키고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 해보았습니다. 바다가 생기게 된 배경,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들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 동요가사 개사하기, 활동극 등 창작활동을 글과 그림으로 마음껏 표현해봄으로써 바다 생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생명존중의 마음 또한 한 뼘 더 커진 듯합니다. 8월에도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이야기로 즐거운 글쓰기 수업은 계속 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끄적끄적 문학놀이_대화가 필요해!

부모와아이, 우리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로서로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도 모른 채 그냥 참아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쯤 엄마, 아빠, 우리 아이들... 서로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또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문학놀이 시간을 통해 치유와 화해를 위한 진정한 소통을 나눌 수 있는 반창고 역할이 되어보길 기대합니다.



한자로 풀어보는 24절기 이야기_소서랑 대서랑 '복날 벼 크는 소리에 개가 놀라 짖는다'

소서와 대서 절기에 벼줄기에 마디가 생기면서 성장이 빨라진다는 의미에서 생긴 속담입니다. 대서에 있는 삼복풍습과 우리 조상들이 삼복더위를 보내는 방법 궁금하시죠? 한자읽기를 통해 익혀가는 언어의 재미, 하늘읽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시간의 개념! 소서랑 대서랑 함께 즐거운 한자놀이 해봐요!



민오름, 다시 또 여름 자연 느끼기, 자연 만지기

찌는 듯 한 더위와 함께 도서관에도 여름이 성큼 찾아왔습니다. 뜨거운 햇살을 잠시라도 피하기 위해 키즈카페, 소풍물을 찾아 실내 활동만 하고 계시죠? 초록초록 여름빛으로 물든 나무와 흙냄새 가득한 자연 속에서 소소하지만 즐겁고 오감을 자극하는 숲 놀이를 통해 일상에 잃어버렸던 자연감성을 채워보면 어떨까요? 우리 민오름에서 만나요!



프로그램 명	일 시	장소 및 횟수	대상 및 인원
<글바당에 풍덩! 글짓는 아이들> _ 나의 바다, 나의 우주 1	7/6, 13, 20, 27(금) 16:00~18:00	세미나실 (4회)	초등 1~2학년 (20명)
<글바당에 풍덩! 글짓는 아이들> _ 고래를 찾아서 1	7/6, 13, 20, 27(금) 16:00~18:00	프로그램실 (4회)	초등 3~5학년 (20명)
민오름, 다시 또 여름 1	7/7(토) 14:00~16:00	세미나실 및 민오름 (1회)	7~8 가족 (6세 이상)
한자로 풀어보는 24절기 이야기 _ 소서랑 대서랑	7/14, 21(토) 14:00~16:00	프로그램실 (2회)	초등 2~3학년 (20명)
엄마와 함께하는 끄적끄적 문학놀이 _ 대화가 필요해!	7/11, 12, 18, 19(수, 목) 16:00~18:00	프로그램실 (4회)	가족 (초등 1~2학년 포함)
명사가 읽어주는 그림책	7/28(토) 16:00~16:30	그림책방 (2회)	6~7세 (현장접수)
책 읽어주세요!	7/7, 14, 21, 28(토) 11:00~12:00	그림책방 (4회)	4~6세 (현장접수)



도서관과 사람



7월에는 꿈바당 프로그램 [고래를 찾아서]를 마치고 뛰어나온 김승현(9살) 어린이와 인터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빠와 종종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곤 하는 승현이가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책은 '유럽축구여행 [꿈자람책방 982-송950]'이라는 여행기입니다.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이하 꿈): 안녕하세요 김승현 친구~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에 자주 왔어요?

승현: 네, 수업하러 많이 왔어요. 수업이 없을 때도 가끔씩 와서 책 읽어요.

꿈: 꿈바당 프로그램 중에서는 어떤 게 제일 재미있어요?

승현: [하늘을 나는 코끼리]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책 읽고 마지막 과자파티 할 때는 서운하기도 했는데, 책 읽고 만들기 할 때가 좋았어요. 곤충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지어냈어요.

꿈: 오늘 처음 한 수업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승현: 오늘은 바다에 대해 공부하는 내용이었어요.

꿈: 바다 좋아해요?

승현: 네.

꿈: 7월은 도서관에서 책도 바다에 관해 전시하고 바다에 관한 이야기들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바다에 관한 질문을 할게요. 바닷물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물속을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승현: 물고기가 된 기분이 들어요. 살짝 무섭지만 물고기가 된 것처럼 재미있어요.

꿈: 돌고래를 본 적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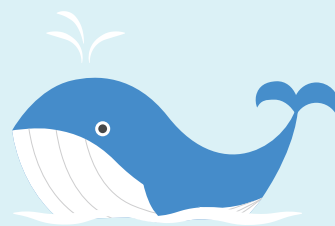
승현: 돌고래를 제주에서 본적 있어요. 배를 탔을 때 돌고래가 막 뛰는 걸 봤어요! 바로 아래에서 수영하는 것을 눈앞에서 봐서 엄마아빠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했어요!

꿈: 돌고래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승현: 네, 없어요. 없어. 고래한테 잡아먹힐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인 게 좋아요.

꿈: 만약에 바다에 간다면 바닷물고기 중에서 만나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승현: 전 플랑크톤을 만나보고 싶어요. 플랑크톤은 작은 새우처럼 동동 떠다니죠.



꿈: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승현: 현미경으로 찾을 수 있어요. 플랑크톤을 만나려면 구멍복이랑 현미경이랑 호루라기랑 물안경이 필요해요.

꿈: 플랑크톤을 만나보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승현: 동물들이 플랑크톤을 잡아먹으니까 잡아먹는 장면도 보고 싶고, 어떻게 태어나는지, 잠은 자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다음엔 플랑크톤에 대해 책도 찾아볼 거예요.

꿈: 혹시 승현이가 바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승현: 바다에는 쓰레기섬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지 말고 오염되지 않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물고기를 만나야 되는데 쓰레기를 버리면 플랑크톤이 죽게 되니까 버리면 안 돼요.

꿈: '행복한 질문'이라는 책에 있는 질문인데, 내일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면 승현이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상상해볼래요?

승현: 저는 꿈을 이루고 싶어요.

꿈: 승현이는 꿈이 있구나?

승현: 한국사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우기는 일본에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말할 거예요. 딱딱 증명할 수 있게 말하고 싶어요.

꿈: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걸 잘 설명해주고 싶구나? 승현이한테는 내일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면 안 되겠는데?

승현: 네

꿈: 지난달에도 승현이처럼 이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승현: 저는 이미 인터뷰를 읽어봤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꿈: 어떻게 읽어봤어요? 혹시 기억나? 가운이가 뭐 질문했는지?

승현: 컴퓨터로 콤팩터런리도서관 홈페이지 들어가서 읽어봤어요. 가운이는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질문했어요.

꿈: 대답 준비한 걸 말해주세요 ^^

승현: 저는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잔치국수요, 아니 김치볶음밥. 1등이 김치볶음밥, 3등은 아직 결정이 안됐어요. 공동 3등이라.

꿈: 공동 3등 알려 줄래요?

승현: 공동3등은 만두랑 계란말이 좋아해요. (모두가 배가 고파짐)

꿈: 승현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다 건강한 음식이구나.

승현: 채소도 많이 좋아해요. 마늘도 이제 큰 거 먹을 수 있어요. 마늘은 처음에 맵고 쓰리다고 싫어하다가, 엄마가 한번 먹어보라고 해서 작은 걸로 먹어봤는데, 아무 맛도 안 난거예요. 작은 거 4개 먹어봤어요. 마늘이 4등이에요!

꿈: 준비한 질문은 끝났는데요. 승현이가 더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아니면 선생님한테 질문 있어요?

승현: 선생님은 언제까지 콤팩터당 도서관에서 지낼 거예요?

꿈: 승현이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승현: 계속 쪽 있었으면 좋겠어요.

꿈: 고마워 승현아, 승현이가 필요하다고 할 때까지 있을게요. 다른 선생님한테도 승현이 이야기 전해줄게요. 너무 즐거웠어요!!

승현이에게 릴레이 질문을 넘겨받았습니다. 8월에 인터뷰할 친구에게 “동식물 중에서 만나고 싶은 것은? 왜 좋아하는지?”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7월 인터뷰에는 도서관 7월 주제인 '바다'와 오나리 유코의 '행복한 질문'에서 발췌한 질문이 포함되었습니다.

공감,공간



제주의 도서관 당오름작은도서관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중산간동로 2210, 2층
전화: 064-783-4094
휴관일: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



‘신화와 오름을 따라 걷는 소원 비는 마을’ 송당리에 ‘당오름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당오름이라는 명칭은 당이 위치한 오름이라는 데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곳은 2016년 작은도서관 공모사업을 통해 조성되었으며, 2017년 4월 6일 개관하였습니다. 기존 송당리새마을회 건물 내에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도서열람실과 프로그램실을 만들었습니다.

당오름작은도서관과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은 ‘도서관의 책요일’이라는 타이틀 아래 <맛으로 읽는 도서관-그림책을 요리해요>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그림책을 읽고 그림책 속 요리를 직접 만들어 보는 수업입니다. 앞으로도 교류하며 지역민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당오름작은도서관은 평생학습프로그램, 마을만들기프로젝트 등 알찬 프로그램들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창을 통해 다정한 오름을 볼 수 있는 곳, 속닥한 당오름작은도서관에서 제주의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제주의 책방 캔북스 CANVOOKS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4길 21
전화: 010-4441-5991
인스타그램: <http://www.instagram.com/canvooks>



세상에 다른 언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어린 날, “언니, 책이 영어로 뭐야?” 하고 물었습니다. 책은 book이야. b다음에 c니까 “그럼 cook는 뭐야?” “그건 요리야.” 그럼 끝까지 이런 식으로 있겠네. 라고 규칙을 발견한 양 기뻐했지만 당시 초딩에 불과했던 언니는 dook 까지는 대답하지 못해 동생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VOOKS가 들어간 간판을 보며, 세상의 규칙을 알아내려 했던 어린 시절이 떠오른 [CANVOOKS 캔북스]는 예술전문서점입니다. 문을 들어서면 직접 만든 탐나는 나무서가 위에 수입 미술서적과 화집이 놓여 있습니다. 카운터 뒤 살짝 보이는 숨은 공간은 이젤이 있는 작업실입니다. 그 곳에서 드로잉 클래스와 미술사 스터디가 열립니다.

예술이라는 단어는 막상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고흐밖에 모르겠어’라는 사람도 ‘전 뭘 좋아해요’라고 이곳에서 살짝 고백한다면 예술의 첫 시작이 될 책을 추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려 애쓴 예술가들의 노력을 캔북스에서 만나봅니다.

시시콜콜 뉴스

2018 서울국제도서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8 서울국제도서전]에 프로그램팀의 김주미, 운영지원팀 김진수, 열람실팀 변아영 사서가 2박 3일 동안 참가하였습니다. 국내외 출판사들의 신간 동향을 파악하고, 서점에서 접하기 어려운 작은 출판사들의 도서를 만났습니다. 책 한권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많은 이들의 노력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의미 있는 책을 선별하여 꿈바당의 책장을 채워나가겠습니다.



매실 따던 날

매실이 익다 못해 후두둑 떨어져서 잔디밭을 굴러다니던 날, 직원들 모두 매실 따기에 나섰습니다. 나무를 흔들자 비처럼 떨어지는 매실에 도망가기도 하였습니다. 따는 건 재밌었으나, 그 뒤에 끝없는 세척과 손질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을 줄이야. 리틀 포레스트의 삶은 쉽지 않을 거란 이야기를 하며, 유리병에 예쁘게 담고 설탕을 채웠습니다. 매실청이 완성되면 도서관의 고마운 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노형꿈틀작은도서관 10주년 책잔치

7월 14일 토요일, 노형꿈틀작은도서관 10주년 책잔치 '느영나영 책사랑'이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많은 가족들이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북카페에서는 "콩콩가게" 김윤화 작가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콩콩가게"는 저마다 슬픈 사연을 지닌 사람들이 갖가지 냄새를 파는 '콩콩 가게'를 찾아오면서 일어나는 독특한 동화입니다. 강연 후 어린이들은 책에 사인을 받으며 기뻐하였습니다. 다음엔 어느 작가님이 오실지 기대해주세요!



전남지역 특화도서관 및 우수도서관 탐방



양민숙 팀장, 조경림 사서는 연이은 폭염이 이어지던 지난 7월 11일, 2박 3일 일정으로 순천시립그림책도서관, 순천기적의도서관, 곡성길작은도서관, 담양공공도서관, 광주이야기꽃도서관, 광주아시아문화전당어린이도서관을 다녀왔습니다.

그 중 순천시립 그림책도서관은 그림책 특화 도서관으로서, 그림책 연구실 공간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소장가치가 있는 세계의 그림책, 관련논문, 홍보물 등을 수집,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광주의 이야기꽃도서관은 민관협력으로 운영되는 그림책 특화도서관입니다. 책을 매개로 사람이 성장하고 소통하는 도서관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도서관 공간 전체가 하나의 그림책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한정된 지면으로 모두 소개해드릴 순 없어 아쉽지만, 이번 탐방을 통해 관사를 리모델링한 꿈바당의 공간 구성에 대해 더욱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전시 모습은 물론, 인상적이었던 표지판과 휴지통 하나하나까지 찍어 와서 직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세종시 인근 충청권 도서관과 부산시 도서관 탐방을 할 예정입니다. 도서관의 정체성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더 멋진 공간을 만들리라 믿습니다.

도서관 정원은 현재 공사 중!

꿈바당 정원은 현재 시설물 정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정화조를 교체하였으며, 돌 징검다리로 된 산책로를 걷어내고, 유모차와 휠체어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나무 데크 산책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하우스와 도롱뇽 테이블을 만들어 어린이들에게 더 친숙한 공간을 꾸미려고 합니다. 차량통제와 소음으로 인해 불편하지만, 가족친화적인 정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니, 양해바랍니다.